

5041

고지 확인서


성명 : 윤채영

주민등록번호 : 830803-2261216 (41세)

주거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2, 208동 1202호 (동면, 장학엘에이치해온체)

본인은 2024. 9. 11. 13:45경 강원춘천경찰서 수사과 수사4팀사무실에서 신문을 받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4. 9. 11.


윤채영 위 확인인 

위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였음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2024. 9. 11.

강원춘천경찰서

사범경찰관 경감 강신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윤채영

위의 사람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9. 11. 13:45 강원춘천경찰서 수사과 수사4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한수지은 사법경찰관 경위 노영래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윤채영

주민등록번호는 830803-2261216

직업은 간호조무사(배재천신경과)

주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102, 208동 1202호 (동면,장학엘에이치해온체)

등록기준지는 춘천시 후평동 159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010-3454-0803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네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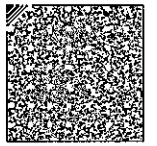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아니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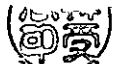
답 :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한다면 어쩔순 없죠

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모든 조사 대상자에게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나요. /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나요.

답 : 발달장애인은 아니고, 경계성지능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 : 혼자 조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요



답 :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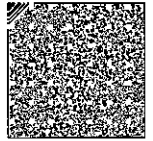


문 : 피의자는 윤채영이 맞는가요

답 : 네

문 : 피의자의 가족관계는요

답 : 남편 이름은 원종삼이고 딸이 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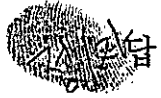
문 피의자는 종교가 있는가요


답 무교입니다

문 피의자의 최종학력은요

답 전문대학교 졸업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월수입 및 재산관계는요



답 세후 19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제  아파트 1채 있습니다.

문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요



답  아니요

문 피의자와 관련된 사건이 경찰서 여러 건 접수중인데 무엇인가요

답 제가 피해를 입어서 신고한 내용입니다. 하나 수사중인 것 있었는데 혐의없음 결과 받았습니다.

문 피의자의 건강상태는요

답 네, 괜찮습니다



문 피의자는 장석주를 아는가요

답 네

문 어떤 관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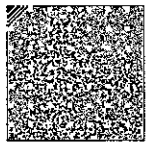
답 웬수사이죠,,, 지금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름이 잘 생각 안나는데,,, 작년 8 월경 장석주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제가 신입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어떤 대화를 하는 방이고, 인원수는 어느정도 되었는
가요

답 인원은 70명 정도 되었던 것 같고,,, 대화 내용은 남자들 여자들이 번개 요청
을 하면 번개로 만나서 친목 도모를 하는 채팅방이었습니다.


문 (기록 223쪽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열람하며) 피의자는 2023. 9. 10. 01:00경 112
로 신고하여 "몇시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자가 거부했으나 강제로 삽
입함/ 계속 저항하자 그만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언동"이라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것은 맞아요, 강제로 삽입한 것도 맞고, 제가 계속 하
지말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현장을 이탈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장석주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어서 제가 그냥 혼자 집에 돌아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 장석주는 피의자를 어떻게 데려다주었나요

답 장석주의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 엄청 싸우면서 집에 갔는데,,, 제가 장석주에게 “내가 니가 오늘 한 짓 다  거야?”라고 하니까, 장석주가 “그러기만 해봐, 나도 다 방법이 있어 사람들은 다 너말 안믿고 내말만 믿을 거야 고소할테면 다 고소해봐 무죄 증거있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내용으로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엄청 소리지르고 싸우면서 집에 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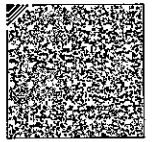
문 싸우는 와중에도 장석주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나요

답 네, 뭐 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문 장석주는 어떤 무죄 증거가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장석주와 개인 카카오톡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 있어요 대화하면서 장석주가 저에게 ‘유혹하지마’라는 내용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왜 내가 하자고 하면 할꺼잖아’라는 내용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대화 내용이 장석주가 제가 성관계를 허락하는 무죄 증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았어요. 강간 사건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걸 증거라고 냈더라고요.



문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한지 오래되었는데,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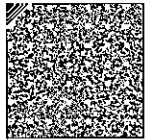
답 그만큼 한이 쌓였으니까요,,, 솔직히 장석주가 잘못했다고 빌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성폭행을 해 놓고 오히려 고소해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말만 믿을 거라고 했으니까 꽤 씹해서,,,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나는거죠

문 112 신고를 한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는요

답 112 신고를 하고 지구대 경찰관하고 같이 해바라기 센터를 갔는데,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서 내일 아침 다시 오라고 해서 2023. 9. 10. 아침에 가서 제가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응급실 같은 곳에서 제 질 내부를 면봉으로 채취했고, 어디어디 접촉했냐고 물어봐서 얼굴, 가슴을 말했고, 간호사 그 부위를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다음 해바라기 센터에서 장석주를 강간죄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 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문 (기록 278쪽 고소장을 열람하며) 2023. 9. 10.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2023. 9. 9. 21:20~22:00 사이 소양강댐 시민의숲 주차장 피고인의 흰색 밴 차량 뒷자석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모두 사실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면, 장석주와 대화한 내용은 장석주와 만났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선우(별명: 이시우)와 대화한 것은 이선우는 어



7/24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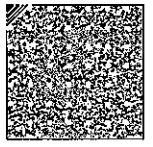
플 같은 곳에서 만난 남자한테, 제가 소양강 댐에서 성폭행을 당한 직후 이선우에게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성폭행 직후 그 주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장석주가 데려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있고 장석주가 밖에 있을 때 "나 성폭행 당했어"라는 내용을 보냈고, 이선우가 "잘 모르겠다 ~~네가 신고해줄까?~~" 뭐 이런식으로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장석주가 밖에 있어서 무서워서 그 카카오톡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장석주가 성폭행한 직후에 처음에는 "미안, 이럴려고 한 것은 아닌데"라고 하였고, 바로 "너 고소해 본 적 있어? 고소할 거야?"라고 해서 장석주에게 들기면 안될 것 같아서 대화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min이라는 사람과의 대화내역도 보면, min도 어플 같은 곳에서 만난 남자애인데, 그 애와 대화하다가 성폭행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min이 빨리 세포채취해야한다고 하면서 해바라기 센터를 알려주었고, 그래서 제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그림 그린 것은 해바라기센터 조사관님이 성폭행 당한 장소를 그려보라고 하여서 그린 것입니다.

문 이선우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피의자가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
~~했~~을 기억하겠네요

답 기억은 하겠는데,,, 저랑 손절해서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문 이선우의 연락처는요

답 (연락처를 찾으며) 제가 이선우에게 이 사건 때문에 진술서 하나 써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요청했는데,,, 거절해서 절교했거든요 아마 진술하려고 안할텐데,,, 010-5554-8736입니다.



문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요

답 음,,, 이 앞에 있는 대화내용인데, 대화 하다가 장석주가 볼까봐 아예 채팅창
을 나간 것 같아요.

문 장석주가 “미안, 이럴려고 한 것은 아닌데”라고 하였고, 바로 “너 고소해 분
적 있어? 고소할 거야?”라고 한 것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답 성관계를 한 직후예요. 옷을 주춤주춤 입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를 화장실로 데
려다 주기 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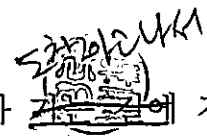
문 어떻게 그 당시 대화한 내용과 대화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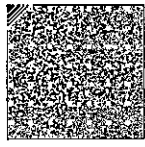
답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문 성폭행 경위를 말하세요

답 차를 타고 소양강댐 시민의숲 주차장으로 갔어요. 장석주가 ~~가운뎃길~~ ^{소양강댐}에 저에게
했던 말이 “프로도 만났어?”라고 물어봤고, 제가 아무 대답을 안하니까 “했구
나”라고 말하었어요. 프로도는 제가 그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장석주가 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침대처럼 되어 있었어
요. 장석주가 누워서 팔베개를 하라는 식으로 팔을 펼쳤고, 저는 그 옆에 누우
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달린 TV를 볼꺼냐고 물어봤고, 제가 안분다고 하니까
졌어요. 그런다음 장석주가 저한테 말도 안하고 제 가슴을 갑자기 (옆에 있던





물티슈를 세계 내리치며) 이런식으로 만지더니, 자기 옷을 스스로 재빠르게 벗
 더라고요.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저는,,, 그리고 옷을 다 벗은 순간,,, 위험한
 순간이라고 감지를 했고, 놀래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 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본인의 성기쪽으로 잡아당겨서 "빨아!"라고 명령하듯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제
 가 겁에 질려서 살짝 입에 넣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할 거야"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애가 구강 성교만 안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는지, 제 치
 마바지를 다시 벗기려고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였고, 제가 "이거 치마바
 지야"라고 말하니까, 바로 바지를 홱 벗겼어요. 그리고 차에서 다른 조명도 키
 지 않아서 자기 휴대전화(폰)를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흥분된 표정으로요. 그리
 고 제가 하지말라는데 강제로 삼입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지말라고 몇
 번 말하니까, 지금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게 되는거냐?라고 하면서 말하면서도
 계속 하다가,,, 몇 번 더 말하니까 지도 신경이 쓰이던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휴지로 제 거기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 입은 티셔츠가
 그 때 입은 티셔츠인데, 상의 다 벗기지 않고 살짝 들더니 양쪽 가슴을 살짝
 아주 잠깐 빨았습니다.

가니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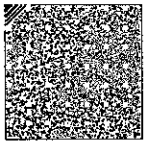
당황하게 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폰)를

(웃)



문 장석주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답 네, 그렇죠. 제 동의를 얻지 않고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기 혼자 스스
 로 옷을 벗고,,, 제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를 하려고 한 것이요. 그리고 삼입도
 저는 하지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의 머리를 어느정도로 잡아당겼는가요
 답 (자기 머리를 세계 잡아당기면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 그렇게 힘을 쓰는 사



람이 아닌데 그 때는 흥분해서 그런지 힘으로 저를 당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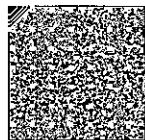
문 머리를 당긴 힘의 정도가 피의자가 강제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힘이
있었나요

답 네, 그냥 쓸려갔어요. 개 힘에 의해서, 저항할 틈도 없이,,, 그리고 개가 성관
계를 멈추고 옷을 입고 난 직후 “고소해봤나? 고소해본적 있어? 너 고소할 거
야?”라고 하였고, 그래서 제가 “몰라”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장석주가 “내가
프로도 보다 못한게 뭐가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개는 해주
고 왜 나는 안해주냐는 식으로 말을 하였어요. 대체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는 식으로 말을 하였어요. 나는 그 꼴 못본다” 뭐 이런식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니까 데려다 준다고 하였어요.

문 그럼 이와 같은 대화를 할 때 장석주와 피의자의 대화 분위기는 어땠는가요

답 장석주가 열등감과 질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본다면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는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질렀다 부드럽
게 했다가 이런식으로 대화하였어요.

문 고소인에 의하면, 뎀 차량 뒤로 가서 팔베개를 한 다음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시작되었고, 장석주가 피의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의자가 신음소리를 내어, 장
석주도 피의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해 주었으며, 피의자가 먼저 장석주의 성
기를 만져 장석주도 피의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때까지도 피의자는 어떠한 거
절이나 거부도 없었으며, 장석주가 구강성교를 요청하자 피의자가 옷을 벗고



자신의 의사대로 구강성교를 해 주었으며, 그 이후 삼입을 위해 치마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도 피의자가 엉덩이를 들어 바지를 벗겨주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답 아녜요

문 장석주가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답 네, 본인 생각입니다. 저는 흥분한 적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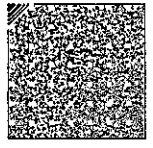
문 (기록 107쪽 카카오톡 및 통화녹취록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를 열람하며) 피의자는 장석주와 이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는가요

답 네 근데 오래되어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문  대화 내용으로 보아 일반적인 지인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답 뭐 장석주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잠자리 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무죄 주장이 이런 카톡인가부죤, 이거 믿고 갑챜나부죤

문 대화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장석주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둘이 보자는 제안을 먼저하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데리러 오라는 대화, 늦은 시간 남편이 다음에 집에 없을 거라는 대화, 내가 자자고 하면 잘




꺼냐? 나랑 몸만 섞을꺼냐 라는 대화를 하고, 그런 대화에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데,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의자도 장석주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흠,,, (묵묵부답)

문 본 수사관은 일반적인 지인이랑 이와 같은 대화를 하지 않고, 연인 관계가 연인이 될 정도로 호감이 있는 상대방과 이러한 대화를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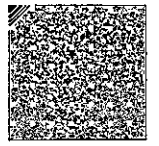
답 글썬요 제가 원래 좀 남들하고 틀린 점도 있어서,,, 제가 지능이 남들보다 좀 떨어져서 아무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 피의자는 지능이 낮아 연인이 아닌 사람과도 이러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석주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대화내용 아닌가요

답 ,,, 뭐 호감을 느꼈던 안느꼈던 간에 여자가 싫다그러면 관계하지 말아야 정상이죠.

문 2024. 9. 9. 17:16 피의자가 장석주에게 먼저 “간단하게 술 마실까”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피의자는 전화 진술에서, 간단히 식사만 마실 생각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답 그런 말은 한 것 같은데 술은 안마셨어요. 늦게 만나서요



문 피의자가 장석주와 만나 식당을 가거나 카페 등을 갔는가요

답 원래는 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편의점만 가고,,, 식당 같은 곳은 안갔어요


문 그럼 피의자와 장석주는 편의점에 갔다가 소양강댐 주차장으로 간 것인가요

답 네 근데 저는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제가 길치인 것도 있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문 소양강댐 주차장에는 그 시간에 여는 식당 같은 것이 있는가요

답 없죠, 아무것도 안보였어요. 불빛도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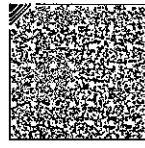
문 피의자는 장석주와 왜 이런 장소에 간 것인가요

답  제가 가지고 한 것 아닌데요

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갔을 때,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요

답 이미 거기 도착해 있는데요,,,

문 피의자가 장석주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뺨 뒤 누울 수 있는 공간에



는 왜 간 것인가요

답 그냥 누워서 얘기나 하나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문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의자와 장석주가 주고 받은 대화로 보아 일반적인 지인 이상의 관계로 보여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차량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로 이동하자고 하였으면,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 생각 못했어요. 모텔이 아니었잖아요. 차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문 피의자는 안재광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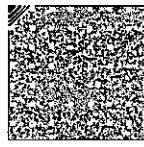
답,,,, 네

문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답,,, 그때 장석주가 저를 데려다주면서 “강간 사건 채팅방에 올리기만 해봐라, 너말 안믿고 내말만 믿을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카카오톡 채팅방 부반장에게 그때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 하였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문 (기록 107쪽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를 열람하며) 피의자가 안재광에서 말하였던 내용이 맞는가요



답 기억은 안나요. 오래되서 잘 기억안나요

문 피의자는 안재광에게 '지금 합의금도 엄청 받아 낼거야 짜증나, (뭐라고?), 합의금도 엄청 받아낼 거야, '뭐 일단은 나한테 증거는 개보다는 많이 있겠지. 그날 당일에 너랑 나랑 자자, 섹스하자,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 (어), 그럼 개 입장에서 서로 합의하에 했다고 그렇게 보장되는 그런 내용은 없지, (어), 개랑 나랑 주고받은 특은 나도 알고는 있으니까 대충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지웠어도, (지웠다고?), 그런 내용은 없었어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은 없었어', '오천만원 이상은 부를수가 있대, 그 변호사도 한 삼천만원을 생각하는데 내가 무조건 쟤게 부를려고 할려면', '어, 오천만원 이상 부를 거야, '내가 듣기에는 경찰이 이런 성범죄는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애매해 자기가 볼 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그러니까 검찰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높대'라는 말을 하였는데 맞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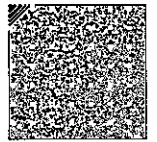
답 그냥 친구한테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말한거예요.



문 그리고, '근데 좋았어 되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럼 강간으로 고소했겠어?(웃음) 안 좋았으니까 고소를 했겠지(웃음)', '기분이 ... 좋았어 동의하지 않았어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 고소를 안했겠지(웃음)'라는 말을 하였는데, 맞나요

답 글썬요,,, 기억 잘 안나요.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제가 장석주 고추를 뺏아터진 어묵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적은 있어요.

문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한 사람이 지인에게 이야기 할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답 글쎄요,,, 제가 그때 화가 많이 났어요. 분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들과 다른 것도 있고, 남들과 생각없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사람한테 성적 모욕을 주고 싶어서 더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문 수사관이 통화 녹음을 들었을때는, 피의자가 웃으면서 신나게 안재광과 대화를 하여 장석주에게 화가 나서 하는 대화로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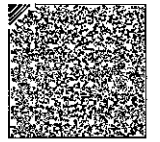
답 그냥,,, 뭐,,, 친구랑 대화하면서 웃는 것이죠

문 장석주는 피의자와 성관계 이후 혹시 모를 생각으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요

답 제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장석주에게 연락이 갔는지,,, 장석주가 카카오톡으로 "이게 무슨 일이나 혹시 몰라 녹음을 했더만"는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대화를 삭제하였더라고


문 본 수사관이 성관계 직후 녹음한 내용을 확인한바, '[47초 구간 장석주 대화 내용]- 입에까지 다 해줬어 입에까지 해줬어 근데 원하지 않는데 그럼 안해 사실 그렇잖아 너가 빨아줬어 니가 빨아줬어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안한대 안할사람 누가있냐 솔직히 그지 없어 그런 사람 근데 난 딱 끊잖아 그거는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게 맞는거야'라고 말하는데 맞는가요

답 그건 기억 안나요... 성기 빠는 것도 강제로 넣은 것인데,,,



문 장석주의 말하는 취지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아닌데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하지말라고 해서 안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이런 대화를 할 때 피의자는 이런 대화를 반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요

답,,, 음 그냥 뭐라그러냐,,,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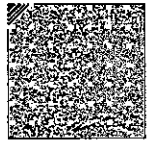
문 계속해서 [2분9초 구간 장석주 대화 내용]- 어쨌든 난 좀 착각을 했어 너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저번에 뭐 너가 그랬잖아 예의상으로 만약 오빠랑 사귀게 되면은 뭐 내가 그때 영상통화하자고 그랬을때도 아직 애인도 아닌데 왜 영상통화를 해 그랬잖아 아직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이 있나 부다 난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만약 오빠 내가 자자 그러면 잘 거야 해서 내가 어 이랬잖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너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가요



답 기억 안나요. 근데,,, 그전에,, 장석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서 몸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보여줬어요.

문 아니요, 장석주가 왜 이런 대화를 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제 생각에는,,, 뭐라그래야 되냐,,, 저랑 장석주가 사귄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연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할려고 하니까,,, 제가 싫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인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문 그리고, 계속해서 장석주는 “그럼 사람들 착각해, 가슴빠는데도 흥분하고 내
꺼 빨아주고 그럼 당연히 성관계도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누가 안내켜할줄 알
았냐”라는 말을 했는데 맞는가요

답 기억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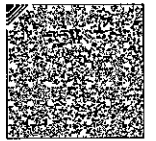
문 장석주는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답 저는 살짝 빨아준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접을 먹고 한 것 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기 판에는 제가 흥분했다고 보였나부죠.

문 그리고, 장석주가 피의자 몸에 다리를 올리자, 피의자가 왜 다리를 올려 무
겁게 라고 말하고, 장석주는 “그럼 너가 일로와 안겨 일로와 빨리 와바 빨
”라는 말을 하였는데 기억하는가요

답 기억안나요.



문 피의자는 앞서 장석주가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의자가 장석주에게 “내가 니
가 오늘 한 짓 다 올릴 거야?”라고 하니까, 장석주가 “그러기만 해봐, 나도 다
방법이 있어 사람들은 다 너 말 안믿고 내 말만 믿을 거야 고소할테면 다 고
소해봐 무죄 증거있어”라고 하였다는데, 녹취 내용에서는 이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싸우는 듯한 대화도 전혀 없었는데, 피의자가 거짓 진술한 것인
가요



답 글쎄요. 그 사람이 녹음했으니까 불리한 것은 지가 녹음 안했겠죠.

문 성관계 직후 녹음을 하였는데, 이러한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거짓 진술한 것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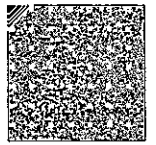
답 성관계 직후 고소 해 본적 있냐 나 고소할 거야 하는 말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한테 불리하니까 녹음을 안했나부죠.

문 피의자와 장석주의 대화를 들어보면, 피의자는 장석주의 말을 반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윤채영의 몸에 장석주가 다리를 올리자 무겁다 내려놔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음), 채팅방 내의 닉네임 '프로도', '택배'가 만났던 사람, 외모, 성격 등에 이야기, 윤채영이 남자가 많아서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윤채영이 대화하고 있는 오픈 카카오톡 대화방에 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직업 이야기, 별명 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잡담을 주고받고 윤채영은 대화  중간 중간 큰소리로 웃고,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는데 기억나는가요 

답 아니요. 대화 내용 잘 기억안나요

문 대화 내용의 분위기로 보아, 피의자는 강간을 당해서 화가 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이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그때는 용서를 할까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슬슬 화가나더라고요. 그 직후에는 화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문 (피의자가 최근에 장석주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여주며) 피의자가 장석주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이 맞는가요

답 네, 맞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문 피의자는 늦은 시간 이와 같은 말을 왜 한 것인가요

답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해주길 바랬어요. 없던 일도 해줄까 하는 생각에 대화해 본 것인데, 미안해하지 않고 해서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답이 됐나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나를 왜 괴롭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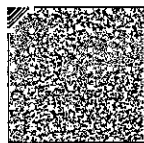
문 장석주가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한 이유는 피의자가 장석주를 강간으로 고소해서 그런 것인데,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것인가요

답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여쭙보는 거예요,,, 

문 (형법 무고 조항을 보여주며) 피의자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답 알아요. 형법 제156조,,, 아니요. 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 윤채영이 '피해자'로 설정하여 검색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를 열람하며) 피의자가 고소한 내역들인데, 피의자가 고소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은 사실



이 있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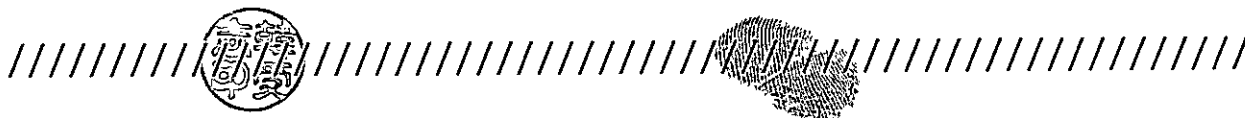
답 18번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검찰청 송치되었고,, 14번 마경환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검찰 송치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종결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없는 얘기를 써서 고소한 것은 아니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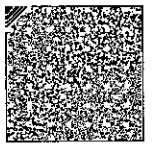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네

문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아니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윤재영



2024. 9. 11.

사법경찰리

경사

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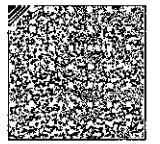


사법경찰관



경위

노영래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13:40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2024. 9. 11. 13:45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16:07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input type="checkbox"/> 시작시각 : 16:07 <input type="checkbox"/> 종료시각 : 16:30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p>2024. 9. 11.</p> <p>사법경찰리 경사 한수지는 윤채영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윤채영로부터 확인받음</p> <p style="text-align: right;">확 인 자 : 윤채영 </p> <p style="text-align: right;">사법경찰리 : 경사 한수지 </p>	